

제목: 물류의 자동화로 인한 일할 권리 침해

학번: 202110293 학과: 물류시스템학과 이름: 양성현

1.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로봇 도입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 물류산업이 꼽히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물류 현장에선 각종 방역 규제 및 구인난 등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누적되어서 미국의 모 기업의 CIO는 물류의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물류의 자동화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찬성 측은 물류의 자동화는 물류 시장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물류의 자동화로 인해 물류업계에서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박탈당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자동화와 AI, 자유의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자동화는 제어시스템과 다른 정보기술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산업 기계류와 공정을 제어, 사람이 관여할 필요를 줄이는 것이고, AI는 인간을 해킹하고 지금껏 인간의 고유의 것이었던 기술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물류의 자동화로 인한 찬반 입장 중 반대 입장으로 이 글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2.1 일할 권리 침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비대면 운송의 중요성이 급증하게 되어 드론을 활용한 배송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아마존과 구글을 비롯한 세계 여러 대기업들이 드론을 활용한 배송을 통해 그동안 수배송을 맡아왔던 택배기사들의 일자리가 위협해지고 있다. 최근 구글의 자회사 왕(Wing)이 펼치고 있는 드론 상품 배송 사업의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왕은 미국, 핀란드, 호주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왕은 전 세계적으로 드론 당일 배송 서비스를 상용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앞으로 점차 드론 배송 서비스가 발전하면 기존에 택배의 수배송을 맡아왔던 택배기사들의 일할 권리가 침해당하게 된다.

상하차 작업에서도 일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원래 기존의 상 하차 작업에서 일하는 인원이 매우 많다. 매일 매우 많은 양의 물량이 들어오고 그 물량의 상 하차 작업을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차를 할 때 가로세로 총 부피 크기를 계산하여 어디에 놓았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 알려준다. 그리고 더 연구하여 나중에는 상차도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일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처음에는 상하차를 도와주는 작업만 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원래 상하차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 대신에 상하차 로봇이 사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물류업계의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듯 물류의 자동화로 인해 AI와 로봇들은 점점 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물류의 자동화를 마치면 필수 인력 규모가 30~40%에 달하는 인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물류업계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AI와 로봇들은 점점 더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2.2 인간다운 삶을 살 최소한의 권리 침해

국가는 국민에게 헌법 제34조 제1항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즉 인간다운 삶을 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드론 배송의 도입과, 상하차 작업 등의 작업에서의 AI와 기계의 도입으로 인해 자동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기존의 물류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AI와 기계가 빼앗아 가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수준도 점차 감소되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많겠지만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하지만 이 AI와 로봇들로 인하여 자동화가 점차 진행되어 30~40%에 달하는 인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AI와 로봇들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면서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해질 것이다. 양극화 현상은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하위 계급이 중산층으로 계급 지위를 상승시킬 수 없게 되며,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필수 문제 중 하나이다.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는 IMF 외환 위기부터 점차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점차 심각 해져서 오늘날에 와서 물류의 자동화와 AI와 로봇의 연구로 인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물류의 자동화와 AI의 발달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으로 AI와 물류의 발달이 가져올 경제성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물류의 자동화와 물류의 자동화로 인해 일할 권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일할 마음만 있다면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배우게 하고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수준을 높여서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의 소득 수준을 올리는 길이 최선으로 보고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3.1 예상 가능한 반론 중 첫 번째로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만, 물류의 자동화와 AI의 발전으로 인한 일의 효율 증가로 인해 기업 전체와 나라가 벌어들이게 되는 자금이 증가하게 되어 경제성 상승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 이유만으론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기업과 나라의 경제는 늘어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더더욱 심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질 수 있고,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자들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2 예상 가능한 반론 중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 마스크 사업이 많이 성장한 것처럼 물류업계에서의 일자리는 감소하더라도 AI 연구개발 관련 등의 직업군에서의 일자리는 늘어나 사회 전반적인 일자리는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물류업계에서 종사하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류층도 중산층도 아닌 하류층의 속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양극화 현상이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4. 나는 물류의 자동화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정확히는 물류의 자동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반대한다. 드론 등의 AI 관련 기술의 발달과 로봇의 발달로 인하여 AI와 로봇들은 인간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일자리를 빼앗고, 그로 인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는 물류의 자동화와 AI의 발달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나는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들에게 일할 마음만 있다면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교육받게 해서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수준을 높여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라 차원에서 복지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런 대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고, 양극화 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2021년 11월 28일 접속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7%8C%EB%B2%95&jomunNo=34&jomunGajiNo=>

전경진 기자, “구글, ‘드론배송’ 사업 탄력...아마존 앞서간다”, 2021년 8월 26일 작성, 2021년 11월 28일 접속

<https://paxnetnews.com/articles/77867>.

박상용 기자, 코로나궤 인력난, ‘로봇 근로자 시대’ 앞당긴다”, 2021년 10월 8일 작성, 2021년 11월 28일 접속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100858861>.

한국교통연구원, “AI 물류 로봇 ‘코봇’의 부상”, 2020년 3월 24일 작성, 2021년 11월 28일 접속

<https://m.blog.naver.com/koti10/221870151046>.

강대엽 MBN 데이터 전문기자, “[데이터루19호] 인공지능으로 물류작업 효율 10% 높인다”, 2021년 11월 16일 작성, 2021년 11월 28일 접속

<https://www.mbn.co.kr/news/economy/4639882>.